



무농약의 비극

유행에 민감하고 농약발전에 둔감해서야

농약 본질 · 발전 상황 알아야 비판 가능, 의복 · 자동차 등의 유행에만 민감
독성기준 정하는 사람도 소비자, 연구자 등 전문가 의견 믿어야

- 홍보부 -

최 근들어 마스크에 의한 농약비판은 줄어들든 감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농약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이 해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에 의한 농약 비판 내용이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원망하게 된 후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그 원망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과 흡사하며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좋은 면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먼저의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마스크에 의한 농약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 한 단순히 농약에 대한 비판보도를 그쳤다고 해서 농약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 의식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농약생산에 기

여하는 수많은 연구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농약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문이나 주간지는 어디까지나 읽을거리이지 교과서는 아니다. 이런 마스크에 쓰인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적어도 농약기사에 관하여는) 작물보호에 대한 교과서나 학교의 강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며 단지 마스크가 작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책임져 줄 것을 바라고 싶다.

의사를 주제로 하는 TV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술의 실패나 악덕 의사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은 있어도 수많은 병자를 구해내는 플러스면(특수한 예는 제외하고)을 소개하는 프로는 극히 적다.

친구 중에 TV나 소설에 등장하는 의사의 악역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때마다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친구가 있다. 우리 농약 프로와 상통함을 느끼게 된다. 교육효과가 있는 매스컴의 무책임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농약이 공해로 취급되는 이유

농약을 공해 또는 위험물질로 취급하는 주요 이유를 보면 납득이 안 가지만 여러 가지가 많다. 먼저 '농약=해'라는 선입견과 생물에 대한 공통의 해 의식, 유기농법의 구가(謳歌), 작물잔류 공해의 염려, 환경에 대한 염려, 살포량의 증가에 대한 염려, 농약잔류에 대한 염려(질과 양의 착각), 레저시설(골프장)에 대한 비판, 신체의 이상을 농약에 결부, 사건과 사고의 무분별(자살의 예), 과거 농약문제에 대한 선입견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농약공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약을 일반 공업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공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소위 4대공해로서 문제가 된 수후병(水俣病)의 수은, 카드뮴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 매연 공해, 해도로 문제, 그리고 근래의 대기오염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산업폐기물이 초래시킨 문제이므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약은 인류생존의 양식인 작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자재라는 점이 앞에 든 공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과학농업이나 근대농업이라 해서 높은 수

확률을 올리고 있는 우리 농업을 지탱해 주는 기본자재는 역시 농약이다. 이 농약은 나날이 발전을 계속하여 선택성이 높은 것, 보다 안전성이 높은 농약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측에서는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만을 우려할 뿐,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저약량화 되어가고 있는 질의 개선이나 개발노력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의복이나 자동차, 전기제품의 유행에는 몹시 민감한 사람들도 농약의 개량 및 발전에 관한 내용은 알고자 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농약을 비판하려면 먼저 농약의 본질, 발전상황을 충분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식품의 허구

얼마 전 집 근처에 「자연식품=건강식품」이라고 선전하는 가게가 문을 열었다. 흥미가 있어 곧바로 기웃거리 보았다. 무, 감자, 오이 등 채소 외에 건어물, 음료 등 보통 상점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자연조건하에서 생산한 것은 모두가 자연식품인데 굳이 자연식품을 간판으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진정한 자연식품이란 고사리, 버섯, 미나리 등의 산야초이지 무나 감자 등이 산이나 제방 등에서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이란 산야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가게 주인에게 물었더니 무농약, 무비료로 지은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간판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연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손님이 더 많이 찾는다는 대답이었다.

실제로 팔고 있는 채소류는 다른 상점보다 2할 정도 비싸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로 무비료,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이라면 3~5배 값이 아니면 팔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비료나 농약을 써서 재배할 경우 50개의 오이를 수확할 수 있지만 무비료, 무농약으로는 10개밖에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는 5배의 값으로 팔지 않으면 경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농약이란 말이 유통업자의 판매수단으로 쓰인다면 결국은 무농약을 외치는 소비자가 가장 혼란스럽고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독성’ 정하는 사람도 소비자

농약의 등록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모든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인축이나 어류에 대한 독성은 엄정하게 체크되어 일평생 먹어도 해가 없는 잔류기준이 정해진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허가하는 사람들도 월급쟁이이고 소비자이다. 특별히 안전한 것을 골라 먹거나 무농약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만 만일 농약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허가해주는 사람들도 농약을 써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암의 발생원인이 식품첨가물, 농약이라고 대답하는 가정주부가 67%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 암을 연구하는 의사의 85%는 보통의 음식물, 담배, 바이러스가 주 발생원이라고 생각할 뿐 농약이 암의 발생원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는 0%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그것은 화학물질 중에서 농약만큼 독성시험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 쪽에서 농약은 발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의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전문외의 분야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언동이라 할 수 밖에 없다. Y

Zoom up